

하얀 모래밭에 숨겨진 까맣게 탄 속마음

발로 딛는 제주잠녀의 삶-구좌읍 세화리

등록 : 2008년 08월 31일 (일) 15:27:31
최종수정 : 2008년 08월 31일 (일) 15:27:31

고 미 기자 ✉ popmee@hanmail.net



한때 350명이던 잠녀 이제는 20명 남짓 바다에 들어...어장 작아도 물건은 좋은 편
축항·방파제 공사 이후 모래 밀려와, 송당배수로 공사 등 바다 황폐화 가속화
하도 먼수동 어장 '대행료' 내며 이용, 발 달력 익숙해져도 바다 의존도는 여전

손만 내밀면 달을 듯한 곳에 근사한 모래밭이 펼쳐져 있다.

해수욕장으로 한몫을 단단히 할 것 같은 바다지만 그곳을 바라보는 잠녀들의 가슴은 하얀 모래와 달리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다.

풍성한 모래사장만큼 잠녀들의 바다 어장은 사라지고 없었다.

숨비소리 보다 깊은 한숨은 그래서 더 시리다.

△이제 더 얘기할 것이 없어진 바다

“뭐 해줄 말도 없는데...”, 점심 장사를 마친 세화해녀 잠수촌에서 고영순 어촌계장(69)을 만났다.

지난 1983년부터 어촌 계장직을 맡아온 그녀에게 바다는 이제 한숨이다. 25년 가까이 어촌계장 일을 보고 있지만 요즘처럼 뜻대로 안 된 적은 없었다.

한때 350명까지 될 정도로 많았던 잠녀는 지금 크게 줄었다. 성계를 할 때면 모를까 지금 물에 들어 작업을 하는 상시잠녀 수는 20명 남짓이다. 이중 15명이 60대다.

어장이 넓지 않아 전면 공동어장으로 사용한다. 고 어촌계장은 “잠녀 수는 적어도 바다에 의지하는 잠녀들은 많다”고 설명했다.

이곳의 소라 TAC물량은 5000kg 남짓. 어장이 작은 것에 비해 물건은 괜찮은 편이어서 잠녀 1인당 연 수입이 1000만원 정도는 된다고 했다.

하지만 이내 모래 바다 이야기가 쏟아져 나온다.

지난 2001년 죽머들 코지에 축항 공사를 하고 난 뒤 삼발이를 이용해 방파제를 설치할 때까지는 몰랐다. 하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모래가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이내 백사장이 만들어졌다. 대신 천초 바다와 툇 바다는 모래밭에 묻혔다.

모래가 쌓이다 보니 투석 작업으로는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

괜찮은 물건을 찾을 수 있는 ‘여’도 사라지고 없다. “어제 보고 왔는데 오늘 가보면 모래에 묻혀있다”는 푸념 뒤로 “이제는 해수욕장 수입으로 살아야할 판”이란 넋두리가 추임새처럼 따라온다.

△그래도 포기할 수 없는 바다 밭 희망

이곳 잠녀들은 성계는 먹이 있는 곳에 뒀다가 1년이 지난 후 작업을 한다. 작은 소라를 주워다 조개뿔 등에 뿌려두고 키운다.

어느 바다가 좋은가를 묻는 질문에 “면수동 아래 도리모살, 모시대기, 지방개, 조개앗, 한 양을 수확하던 천초도 올해 30kg포대 2개를 채우는데 그쳤지만 그리 개의치 않는다.

송당 배수로 사업 이후 뿌려놓은 전복 종패 대신 빈 껍데기만 주웠다. 그 흔하던 솜도 싹 사라지고 없지만 바다를 버릴 수는 없다.

소라와 툇, 천초가 많이 나는 하도리 어장에 수수료를 내면서까지 드는 것도 그 때문이다. 시신 처리문제로 하도리에 내준 면수동 아래 지방개·도리모살·보시레기 어장은 원래 세화리 어장이었다.

툇과 천초는 하도리민들이 작업하고, 세화리 잠녀들은 소라를 잡는다. 대신 하도리 어촌계에 대항료 10% 내고 처리한다.

바다 달력보다는 7월 중·하순부터 달근 파종, 8월 들면 가을 감자 하는 밭 달력이 익숙해졌지만 잠녀들에게 기댈 곳은 바다뿐이다.

다른 지역 천초가 좋아 이곳 창고에서 마른 천초와 툇을 저장하고 있다. 소라 저장고인 물양장을 내주기도 한다.

어촌계 수익 사업인 잠수촌 식당도 뜻대로 되지 않아 내년부터는 남에게 맡길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바다에 익숙한 사람들이 옛 향수에 젖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다. 그때만큼은 아니더라도 그랬던 때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바다에 대한 희망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발로 딛는 잠녀들의 삶’ 다음 이야기는 제주시 우도 어촌계이며, 관련 내용은 해녀박물관 홈페이지 (www.haenyeo.go.kr)를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